

파키스탄,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향후 전망

- 지난 10월 6일,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한 무샤라프 대통령은 그의 후보 자격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11월 3일,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임시헌법령(Provisional Constitutional Order; PCO)을 발동함으로써 소요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악화되고 있음.

1. 무샤라프 집권 이후의 주요 정치 변화

- 1999년 10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무샤라프는 2001년 5월 타하르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스스로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총리, 대통령, 육군 참모총장 등을 겸임하였으나,
 - 집권 당시의 공약이었던 민정이양을 실시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2년 10월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동년 11월에는 친군부 성향의 자말리가 총리에 취임함.
- 이 과정에서 무샤라프는 대통령이 의회해산 및 총리 해임권을 갖도록 하고 군부가 장악한 국가안보위원회에 주요 정책결정의 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독재적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

2.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배경

- 2007년 10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 유지에 불안을 느껴온 무샤라프는 지난 3월 이프티카르 초우더리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측근을 배치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전국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시위 세력간에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국이 혼란해졌음.
- 무샤라프 대통령은 반정부 성향이 강한 초우더리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사법권 및 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초우더리 대법원장을 복권시켰으나, 공직자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파키스탄 선거법에 의해 자신의 대선 입후보 자격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를 우려하고 있었음.
- 파키스탄 선거법은 공직에 재직중이거나 퇴임한지 2년이 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육군참모총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무샤라프의 대선 출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였으나, 대선을 앞둔 지난 9월 28일, 대법원이 출마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선관위가 예외 규정을 만들었음. 따라서 무샤라프는 후보 자격을 얻었으며 이에 대해 야당은 재차 헌법 청원을 제기하였음.

〈파키스탄 주요 정국 일지〉

일자	주요 내용
1999년 10월	나와즈 사리프 총리 축출후, 무혈 쿠데타로 집권
2002년 5월	무샤라프, 대통령, 총리, 육군참모총장 등을 겸임
2002년 10월	총선 실시로 자말리 총리 취임
2007년 3월	이프티카르 초우더리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
2007년 9월 30일	야당 대선후보들, 무샤라프 후보자격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07년 10월 5일	무샤라프, 제1야당 지도자 부토와 권력 분점 합의
2007년 10월 6일	무샤라프, 간접선거를 통한 대선에서 압승
2007년 11월 3일	무샤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후 임시헌법령(PCO) 발동

- 지난 10월 6일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한 무샤라프 대통령은 야당의 위헌 여부 제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11월 3일,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임시헌법령(PCO)을 발동하였는데 이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현 대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까지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임.

3. 향후 전망

- 정국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군부의 정권 장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정국 불안이 대규모 민중 봉기로 이어지거나 이슬람 무장 세력과의 본격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나,
- 무샤라프가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을 자제하고 부토 전총리와의 정권 분점 협상과 함께 내년 1월의 총선을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을 공언할 경우 반정부 시위가 조만간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음.
- 또한 무샤라프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지원이 소요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정치적 변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필수적인 파키스탄의 협조를 얻기 위해 무샤라프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하고 그동안 1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해 왔으며, 향후에도 무샤라프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이상, 직접적인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리고 파키스탄이 인도와 함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파키스탄내 정국 불안이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무샤라프 정권은 개인의 권력 장악이기 보다는 군부를 대표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므로, 향후 소요사태 악화 등으로 그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경우 파키스탄 군부가 쿠데타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결국, 향후 파키스탄 정국은 무샤라프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결과와 내년 1월의 총선 실시 여부에 따라 정치적 혼란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당분간은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파키스탄 군부에 의한 정권 장악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번 정국 불안은 최근 3년간 7.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파키스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섬유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성장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나, 파키스탄 경제가 기본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 파키스탄 지원이 지속되는 한 경제적인 큰 변화는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문의 : 선임연구원 손승호 (☎3779-6672)